

사회

광주지역 신협 8곳 '유령 건설기계' 대출사기 1년

서민돈 빌려주고 못받으면 그만인가

손실금 176억중 150억 회수 못해 조합원 피해

대표적인 동네 서민금융기관인 광주지역 신용협동조합 7곳이 지난해 '유령 건설기계' 대출 사기에 휘말려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대부분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일선 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드러난 유령 건설기계 대출 사기 피해금액 175억9900만원 가운데 지난 1년3개월 동안 회수한 금액은 각 조합별로 2억~6억원에 불과했다.

7600만원 등이다. 이들 신협 모두 당시 펌프카, 전동기 등 대당 액대에 달하는 건설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자 신용상태 파악, 서류상 담보물건 확인, 담보물건 현지조사, 내부규정에 따른 담보물 평가 등의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신협 직원들이 대출 사기를 도운 셈이다.

계를 서류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준 160여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추심 과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물과는 달리 건설 기계와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장도 받을 수 없어 앞으로 이들 신협은 운영 수익으로 손실금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해마다 수익률을 따져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 일부 학교 보건실 청소년 금지약품 사용

광주지역 일부 초·중학교 보건실에서 식약청이 1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방 의원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초·중학교 보건실에서 구입·사용한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에서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한 케토프로렌 성분의 파스류를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늘 날씨, 일요일 비소식, 기상내전화: 국민없이 131



마음을 열다 '문화전당 토크콘서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2일 오후 6시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특설 무대에서 '문화전당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성행위 중 남편 사망사건 檢, 항소... 과실치사 추가

광주지검은 22일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변태 성행위를 하던 중 낙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인 B(43)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본보 22일자 7면 보도)한 것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B씨가 남편의 요구로 낙타이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가정폭력을 휘두른 데 대한 양심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졌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방경찰청장 행보 '눈길' 안재경 청장 '현장' 전석중 청장 '소통'

지난달 말 취임한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전석중 전남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을 이끌고 있어 화제다. 안 청장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부터 지켜온 '새벽 거리 밤 지구대' 스케줄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녹색어머니회의 통학길 안내에 동참하고 거리 곳곳에 교통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 청사로 향하고, 퇴근하면 저녁식사를 후 취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대를 찾아가 격려하는 것이다. 전 청장은 청장실의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특진한 경찰관 2명을 전직원 앞에서 치하할 때 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생활을 맞는 경찰관들을 청장실로 불러 축하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강의자료 역시 직접 제작하고 있다. 모든 행사에서 청장이 입장할 때 직원들에게 좌석에서 일어선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시도 장학관·장학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국가지정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 장학관(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

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교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무궁화호 무박 2일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김유정문학촌·소양댐 기차여행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